

농인의 알 권리와 언어권 보장하는 공공수어 통역 시대 개막

김육환 공공수어 통역 품질점검 위원장 | 고경희·권동호 수어통역사의 대담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 2020. 4.

실전 띄어쓰기(1)
**보통의 날을 세다
단위 띄어쓰기**

쉽게 읽는 문법 용어(1)
품사와 문장 성분

국어원 소식(1)
『선거방송 언어 지침서』 발간

표준어 바깥의 세상
뽕풀이와 보풀떨이

말뭉치로 바라보기
텐트와 천막은 같은 말일까요?

우리말 다듬기(1)
자연식

실전 띄어쓰기(2)
**슬기로운 한 번 더 거리 두기 생활
‘한번’, ‘한 번’ 띄어쓰기**

쉽게 읽는 문법 용어(2)
체언, 용언, 수식언

국어정책 통계
내겐 아직 너무 어려운 공공언어

국어원 소식(2)
국립국어원이 도와드립니다!

우리말 다듬기(2)
영상 일기

목차

쉽표, 마침표. | 2020. 4.

국어 배우기

- 2 쉽게 읽는 문법 용어 품사와 문장 성분
- 6 체언, 용언, 수식언
- 10 표준어 바깥의 세상 뉘앙스와 보충어휘
- 14 실전 띄어쓰기 보통의 날을 세다-단위 띄어쓰기
- 16 슬기로운 한번 더 거리 두기 생활 한번, 한 번 띄어쓰기

국어 알리기

- 18 국어원 소식 국립국어원, 『선거방송 언어 지침서』 발간
- 20 국립국어원이 도와드립니다!
- 24 국어정책 통계 내겐 아직 너무 어려운 공공언어
- 30 우리말 다듬기 자연식
- 32 영상 일기 영상 일기

국어로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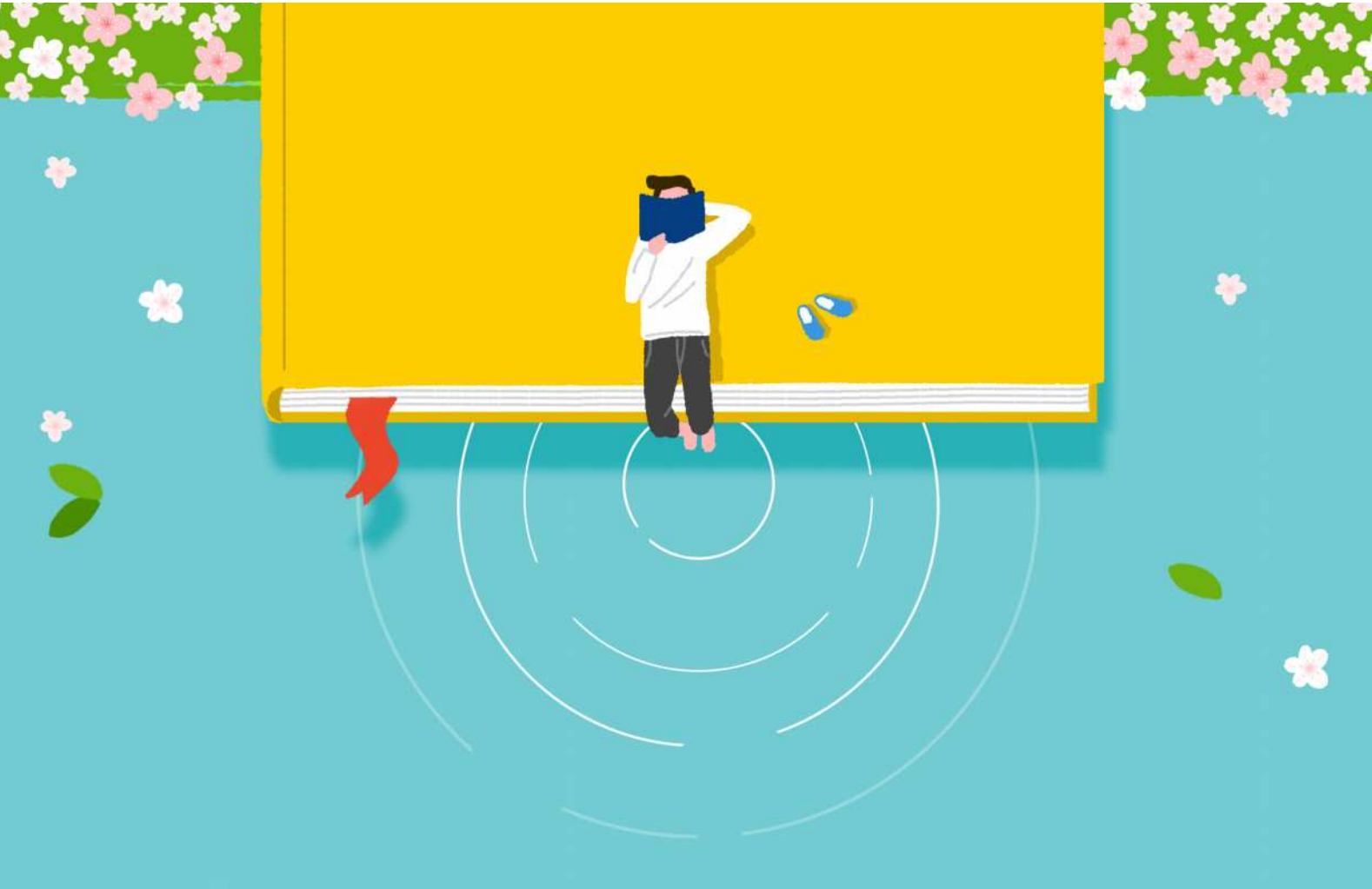
- 34 말뭉치로 바라보기 텐트와 천막은 같은 말일까요?
- 38 우리말 그리고 사람 농인의 알 권리와 언어권 보장하는 공공수어통역 시대 개막

우리말 풀기

- 46 우리말 풀기 독자 참여 행사



품사와 문장 성분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어떤 언어에서든 막대한 수의 단어가 있지만, 그 모든 단어들의 속성이 다 제각각이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일정한 공통적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단어들을 몇몇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유형들의 이름을 ‘품사(品詞)’라 한다. 품사 분류에 사용되는 속성은 단어의 모양, 역할, 의미이다. 즉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의 속성에 따라 분류한 갈래이다. 우리말의 품사는 대개 아홉 가지로 나뉜다.

(1)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1)의 품사 이름을 보면 모두 ‘-사(詞)’ 자가 붙어 있다. 품사 이름에는 ‘-사’ 자를 붙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품사는 문장에서 어떤 모양으로 쓰이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작다’라는 형용사는 ‘작고, 작지, 작았다’ 등과 같이 형태가 계속 바뀌어도 형용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되지 않는다.

한편 ‘문장 성분(文章成分)’은 어떤 말이 문장 속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한 갈래이다. 그런데 어떤 말의 품사는 바뀌지 않지만, 그 말이 어떤 문장 성분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한다.

(2) 영호 왔니?
(3) 너는 영호 좋아해?

(2)에서 ‘영호’는 ‘오다’라는 행위의 주체이므로 주어로 분류된다. 그런데 (3)에서의 ‘영호’는 ‘좋아하다’라는 행위의 목적 대상이므로 목적어로 분류된다. ‘영호’는 사람 이름을 나타내므로 품사로는 항상 명사이지만, (2)에서 ‘영호’가 하는 기능과 (3)에서 ‘영호’가 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문장 성분의 이름은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문장 성분이 품사와는 달리 그때그때 결정되는 가변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우리말의 문장 성분은 대개 일곱 가지로 나뉜다.

(4)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4)의 문장 성분의 명칭을 보면 모두 ‘-어(語)’ 자가 붙어 있다. 위에서 품사 이름에 ‘-사’ 자를 붙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국어사전에 실리는 단어에 품사 이름이 표시될지 문장 성분 이름이 표시될지 생각해 보자.

(5) 책 , 웃다

국어사전에서는 ‘책’과 ‘웃다’에 각각 (명사)과 (동사)이라는 표시가 있다. 이렇게 품사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품사가 단어의 본질적 속성에 따라 분류된 것이므로 문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이든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 성분 이름은 표시할 수가 없다. 문장 성분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좀 더 심화된 예를 보자.

(6) 나는 옛 사진을 보았다.
(7) 그 사진은 오래되었다.
(8) 언니는 오래된 사진을 보았다.

(6)에서 ‘옛’은 명사 ‘사진’을 꾸며 주는데, 이처럼 명사를 꾸며 주는 속성을 가진 품사를 관형사라 한다. 이 문장 속에서는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7)의 ‘오래되었다’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러한 속성을 가진 품사를 형용사라 한다. 이 문장 속에서는 사진의 상태를 서술하므로 문장 성분은 서술어이다. (8)의 ‘오래된’은 ‘오래되다’가 형태만 바꾼 것이므로 품사로는 (7)과 같은 형용사가 된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서는 ‘사진’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된다. ‘오래되다’는 형용사이지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7)에서처럼 서술어가 되기도 하고, (8)에서처럼 관형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 다시 정리해 볼까요?

품사

-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의 속성에 따라 분류한 갈래
- 어떤 모양으로 쓰이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
- 종류: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문장 성분

- 어떤 말이 문장 속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한 갈래
- 하나의 단어가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음
- 종류: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체언, 용언, 수식언’의 개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체언

- 명사와 대명사와 수사를 아우르는 말
-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고, 대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며,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냄
- 뒤에 격 조사가 올 수 있고, 앞에서 관형어가 꾸며 줄 수 있음

용언

- 동사와 형용사를 아우르는 말
- 동사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냄
-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함

수식언

- 관형사와 부사를 아우르는 말
- 관형사는 체언만 꾸며 주고, 부사는 용언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상을 꾸며 줌

뱀풀이와 보풀떨이



글. 이길재(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그래서 번연히 죄도 없는 남편인줄은 몰으는것도 아니나 제성미를 못익여 애구진 **{보풀떠리를}** 하는것이다. 《채만식[(1936)]: 명일》

1936년 잡지 《조광》에 연재된 채만식의 중편소설 <명일>의 일부이다. <명일>은 2005년에는 남한에서, 2010년에는 북한에서 재간되었다.

그래서 번연히 죄도 없는 남편인 줄은 모르는 것도 아니나 제 성미를 못 이겨 애꿎은 **{보풀떨이를}** 하는 것이다. 《채만식[(2005)]: 명일》 (남)

그래서 번연히 죄도 없는 남편인줄은 모르는것도 아니나 제 성미를 못 이겨 애꿎은 **{뱀풀이를}** 하는것이다. 《채만식[(2010)]: 명일》 (북)

남북의 재판에서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것은 ‘뱀풀이’와 ‘보풀떨이’이다. 이 말은 ‘부아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속이 시원해지도록 누군가에게 쏟아 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분단 이전인 1936년 당시에는 ‘보풀떠리’였던 것이 분단 이후에 남에서는 ‘보풀떨이’로 표기만 바뀐 데 반해 북에서는 ‘뱀풀이’로 어휘 자체가 바뀌었다.

‘뱀풀이’는 《조선말대사전》에 실려 있는 말이다. ‘뱀’은 ‘배알’의 준말이다. ‘배알’은 ‘창자’나 ‘속마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니, ‘뱀풀이’는 ‘속마음을 풀어 내는 일’을 가리키는 말일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보풀떨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조선말대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우리가 잘 아는 ‘보풀’은 ‘형겉 같은 데에 부풀어 일어나는 몹시 가는 털’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이 ‘보풀떨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칼스럽다’의 전라도 방언으로 ‘보풀스럽다’가 《우리말샘》에 실려 있고, 작가 채만식의 고향이 전북 군산이라는 점에 비추어 전라도에서는 속에 쌓아 둔 응어리 같은 것을 풀어 낼 때 ‘보풀’이라는 말을 써 왔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뿐이다.

오늘날 ‘보풀떨이’는 남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뱀풀이’는 요즘에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현설이 앞에 있으면 자기는 그런 도리에 어긋나는 방조가 고맙지 않다고, 밤에 떠날것 같으면 낮에 마중은 왜 왔는가 **{뱀풀이라도}** 하고싶었다. 《리기세(1979): 숲이 푸르러갈 때》 (북)

꼭 자기가 서향의 일로 금실에게 **{뱀풀이를}** 한것만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김혜성(2007): 별하늘》 (북)

물참봉이 된 남철이가 성이 머리끝까지 올라 채찍을 찾아 쥐고보니 **{뱀풀이하려던}** 생각보다도 겁이 더럭 났다. 《리원길(1984): 약혼전 어느 하루》 (중국)

연옥은 그러잖아도 엄선생을 끔하게 생각하며 속에서 붙는 불을 끄고있는데 경선이를 내보내는 것으로 자기에게 **{뱀풀이를}** 하는것 같아 성이 발끈 났다. 《고신일(1983): 그 가슴의 영예》 (중국)

‘뱀풀이’처럼 우리말에는 ‘-풀이’를 붙여 ‘가슴에 맺힌 응어리나 분을 쏟아 내는 일’을 뜻하는 말이 많다.

남: 가슴풀이, 기분풀이, 설움풀이, 심화풀이, 앙심풀이, 역정풀이

북: 뱀풀이, 주정풀이, 행풀이(=화풀이)

남북: 감정풀이, 골풀이, 독살풀이, 분풀이, 성풀이, 속풀이, 악풀이, 앙분풀이, 원풀이, 한풀이, 화풀이

요즈음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침체되어 있다. 몹쓸 바이러스를 다 쫓아내고 ‘신명풀이’나 ‘흥풀이’를 하면서 신나는 봄을 어서 맞이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지마씨가 지난날의 **{신명풀이를}** 못다 해서 사내들이 출입하는 술청이 좋아 마땅히 의탁할 곳도 없던차에 두말없이 우리와 짝이 된줄 알았소. 《김주영(1996): 야정》 (남)

그러므로 살풀이 과정에서 신명은 반생명적인 살의 정체를 밝혀 전투적 현실 인식을 수행한 것이어서 단순한 **{흥풀이거나}** 소비적인 정서의 해소일 수가 없다. 《채희완: (1993): 탈춤》 (남)

분희는 어떤 사물과 접촉하여 감흥이 일어날 때면 민요를 한곡조씩 겹겹하게 넘김으로써 **{흥풀이를}** 하기 좋아했다. 《김용식(1984): 산골녀성들》 (중국)

보통의 날을 세다 단위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이럴 때 띄어요!	
세는 말은 별개의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징어 세 마리 사과 두 개 차 두 대 집 한 채 옷 세 벌	장미 두 송이 꽃다발 한 아름 열 살 냉면 두 사리
미나리 한 손 마늘 두 겹 연필 다섯 자루 운동화 두 켤레	
이럴 때 붙일 수 있어요!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함께 쓰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삼학년 육층	2020년 4월 15일 6동 102호 80원 7미터
알아 두면 쓸데 있는 단위 명사	
거름	팔 따위로 한 뭉에 거두어들일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출일 한 거름, 장작 한 거름)
거리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오십 개를 이른다.
마지기	논밭의 넓이의 단위(1마지기=는 150~300평 / 밭 약 100평)
못	짚, 장작, 채소 따위의 작은 묶음을 세는 단위
사리	국수, 실 따위의 뭉치를 세는 단위
손	생선, 채소처럼 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아름	두 팔을 둥글게 모은 물레 안에 들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자방	나물이나 양념 따위를 손가락을 모아서 그 끝으로 집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접	채소나 과일을 묶어 세는 단위(1접=100개)
조집	쪼갠 장작을 세는 단위. 한 조집은 사방 여섯 자 부피로 쌓은 분량의 쪼갠 장작 더미를 이른다.
줄기	잇대어 뻗어나가는 산, 강, 물 따위의 길래를 세는 단위
죽	오징어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죽은 오징어 스무 마리를 이른다.



즐거로운 한 번 더 거리 두기 생활 '한번', '한 번'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즐거로운 한 번 더 거리 두기 생활

한번, 한 번 띄어쓰기



삶의 방식이 바뀌는 요즘,
한 번도 안 해 본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기회에 한번 배워 보자'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까다로운 **한번**과 **한 번**은 문맥에 따라
띄어쓰기가 다릅니다. 자세히 볼까요?

'한번' 이럴 때 띄어요!

- **한번**도 안 해 봤어.
- 하루에 **한번** 운동하기
- 딱 **한번**만 더 할게요.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띄어 써요.
수 관형사 '한' +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번'

'한번' 이럴 때 붙여요!

-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 **한번**엔 꼭 만나자.
-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인데!
- **한번** 먹어 봐.
- 노래 **한번** 잘 한다.

지난 어느 때나 기회(명사)
기회가 있는 어떤 때(부사)
일단 한 차례(부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하는 경우(부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경우(부사)

이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한 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꿔도 뜻이 통하면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써요.

- 한번만 더 고민해 봐. (○)
- 와, 노래 한번 잘한다! (○)
- 두번만 더 고민해 봐. (○)
- 와, 노래 두 번 잘한다! (X)

그 밖에 '한' / '한번' 띄어쓰기

한잔	간단하게 마시는 차나 술	한번	하나의 잔
한사람	같은 사람	한사람	사람 한 명
한때	같은 무리	한때	때 하나
한가지	같은 종류	한가지	전체 중 한 종류
한마디	짧은 말	한마디	말 한 도막
한자리	같은 자리	한자리	자리 한 개



한 번도 안 해 본 일에 도전하며
거리 두기 시간을 즐기게 보내 봐요.
띄어쓰기 공부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국립국어원, 『선거방송 언어 지침서』 발간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 토론 방송과 개표 방송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언어 사용 지침을 담은 『선거방송 언어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선거방송 언어 지침서』는 실제 방송 사례, 심의 사례,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 토론 방송”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어투나 몸짓을 사용하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주장을 하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개표 방송”에서는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표 결과에 대한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선거 방송 언어 지침

- 타당한 근거 없이 예측·해석·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정보를 왜곡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표현해야 한다.
- 특정 개인·집단·계층·종교·지역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인용 시 말한 주체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만, 취재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인용 내용을 임의로 누락, 첨언, 환언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예) 의뢰 기관, 조사 기관, 조사 방법, 응답률, 질문 내용, 조사 기간, 오차 한계 등
- 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하거나 우열을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개표 결과에 대한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예) 우세, 경합, 혼전, 확실 등
- 고성, 비아냥거림, 삿대질 등의 부적절한 어투나 몸짓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끼어들기, 말 자르기 등 말하기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상대를 비하, 조롱, 위협하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과장된 표현, 극단적 표현, 감정이 담긴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비속어, 욕설, 인격 모독 표현, 무례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성별·연령·학력·직업·외모·장애·계층·지역·인종 등과 관련하여 편견을 조장하거나 조롱·모독하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적절한 해설 없이 전문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외국어, 약어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신조어, 유행어, 은어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보편적 가치관, 윤리적·문화적 관습에서 벗어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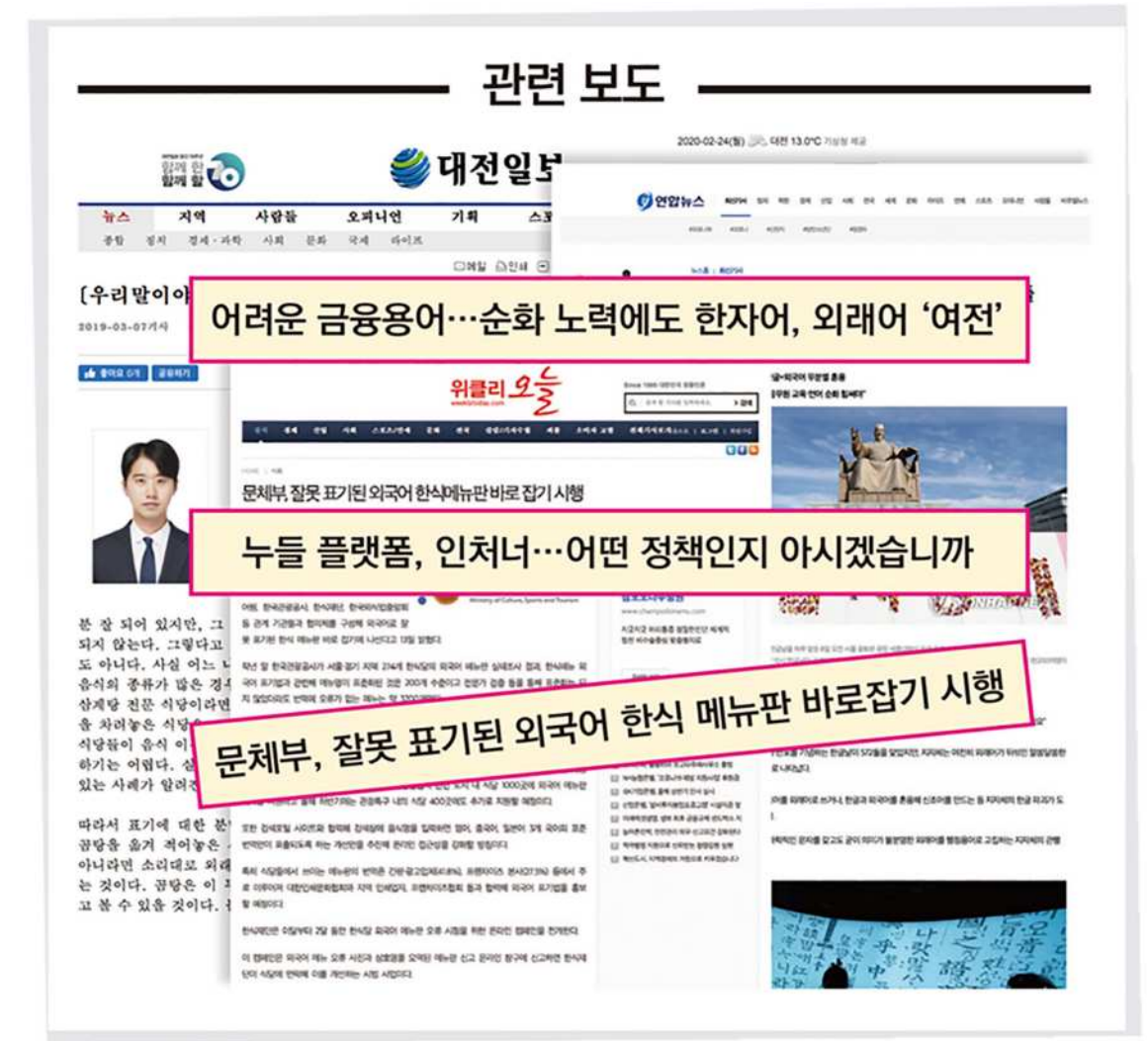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이 지침서가 유권자의 알 권리와 건전한 선거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후보자와 방송인들이 선거방송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방송 언어 지침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책자로 제작되었으며,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 > 연구 조사 자료 > 기타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국어원이 도와드립니다!



ODA, 브라운백 미팅, 해커톤, VC 투자, MICE 산업, 퍼실리테이터, 배리어 프리, 밸류 체인, 스마트 팩토리…….



어려운 말은 정보의 소통을 막아 정보의 독점과 차별을 낳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를 쓰는 일은 국민 소통을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국립국어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만들기엔 관심이 있는 공공 부문 종사자들을 위해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안내문, 공고문, 법령문,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면서 지금 쓰려는 용어나 문장이 적절한지, 좀 더 나은 용어 나 표현은 없는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을 찾아 주세요.

공공언어 감수 사례



이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표시되어 있는
정격하중(인승)에 약 20%를 감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탑승을 위해 출입문 닫힘 시간 조정 및 닫힘 버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승강기는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대 무게의 80%만 실거나 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입문 닫힘 단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언어 번역 게시판 검색 결과			
한글 명칭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곰탕	Beef Bone Soup/@gomtang	牛骨汤	コムタン
오름	Parasitic Cone	火山丘	オルム

정책용어 상담 사례



'대통령표창에 관한 건'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현행
규정에는 깃대 끝부분을 깃봉으로 표현했는데,
개정안에서는 현실에 맞게 '기창'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제안하신 '기창'은 '깃대 모양의 창' 또는 '기를 단 창', 즉
'깃봉'이 아니라 '창'을 나타내는 말로 읽히기 쉬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용어는 '깃봉'을 그대로 쓰되, 대통령
표창기에서는 '깃봉의 모양을 뾰족하게 한대또는 그림과
같이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말 다듬기 게시판 검색 결과		
다듬을 말	원어	다듬은 말
화이트 리스트	white list	수출 심사 우대국
뉴트로	newtro	신복고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범용 디자인

공공언어 감수

국립국어원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감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 언어 감수 요청' 게시판에서 대국민 공문서에 대한 문장 감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용어 상담

국립국어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새로 제정하려는 법률이나 제도, 새로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사업에 쓰고자 하는 용어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정책에 쓰이는 용어는 한번 도입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쉬운 용어로 다듬어서 정책의 효과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전문용어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처마다 또는 부처 내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02-2669-9766으로 전화해 주세요.

공공용어 번역

국립국어원은 2013년부터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어의 표준화는 공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우리 한국어, 한국 문화를 외국인에게 바르게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명, 건물명, 도로명, 안내 표지판 등 관광 분야 용어와 한식명, 한국학에 관련된 문화 분야 용어에 대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표준 번역안을 '공공용어 번역 정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번역안이 마련되지 않은 용어의 경우, 요청을 하시면 영·중·일 번역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낯설고 어려운 외국어나 한자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 있습니다. '다듬은 말' 검색창에서 그동안 어떤 말을 어떻게 다듬었는지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각종 문서를 작성할 때 다듬은 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국립국어원이 도와드립니다

국민 소통을 이루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국립국어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려는 용어나 문장이 적절한지, 좀 더 나은 용어나 표현은 없는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을 찾아 주세요.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
<https://publang.korean.go.kr>

공공언어 감수

정책용어 상담

우리말 다듬기

공공용어 번역

공공언어 감수 정책용어 상담 국민제보 02-2669-9726
공공용어 번역 02-2669-9651 우리말 다듬기 02-2669-9722

포스터를 클릭해서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에 방문해 보세요!

내겐 아직 너무 어려운 공공언어



공공언어란 공문서나 민원서류, 보도자료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2017년 3월 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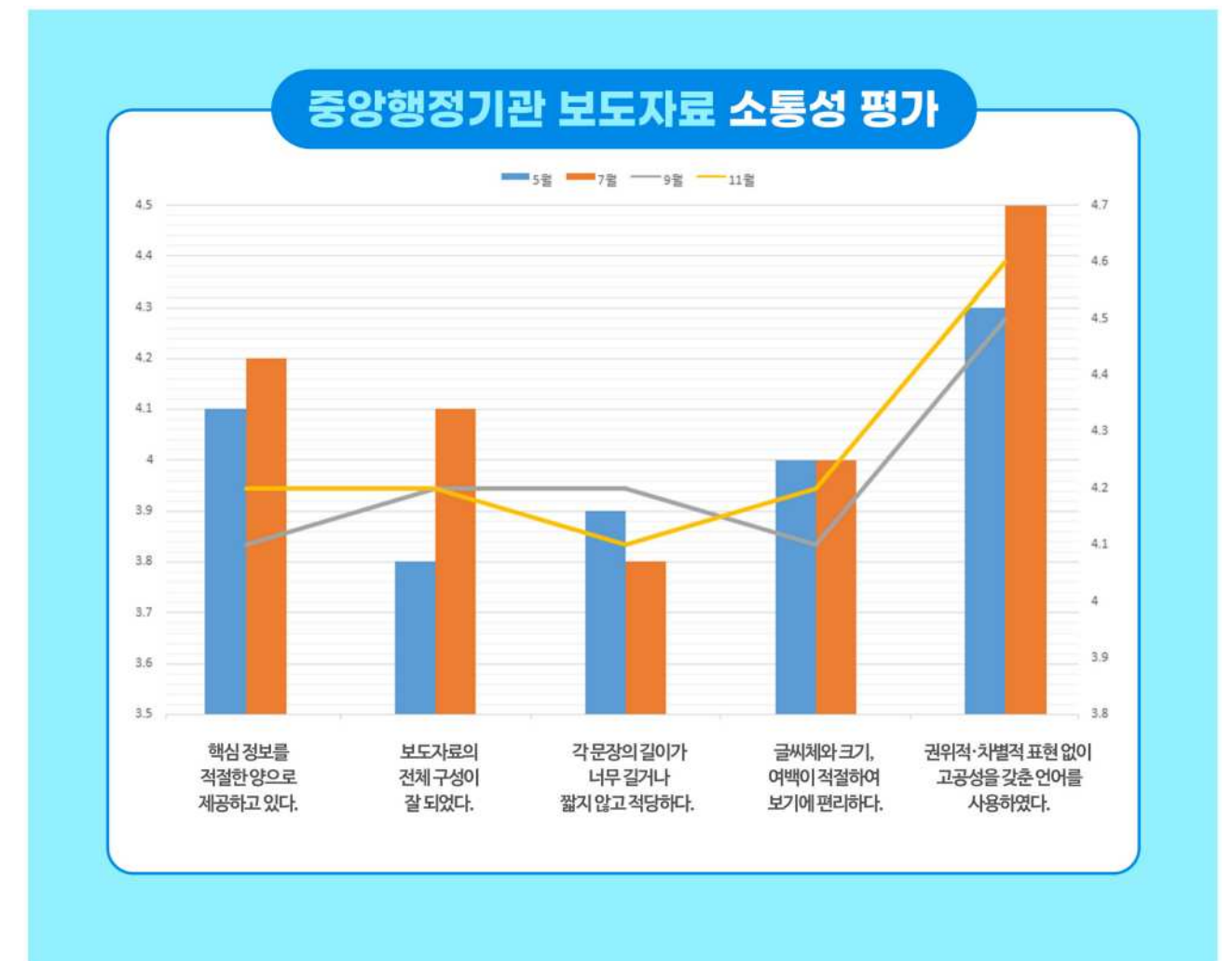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언어가 많다고 말합니다. 국민이 공공언어를 어떻게 느끼는지 숫자로 살펴볼까요?

1.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해 보니

• 보도자료, 이해하기 쉽나요?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써야 하는데요. 『2019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최종 보고서』에서는 보도자료를 소통성 영역과 정확성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통성의 평가 기준으로는 ‘정보의 양’, ‘전체 구성’, ‘문장 길이의 적절성’, ‘권위적·차별적 표현 없는 언어 사용’, ‘어려운 외래어·한자어 사용’이 있습니다.

소통성 영역 중 ‘권위적·차별적 표현 없는 언어 사용’에 관한 평가는 만점인 4.5점을 받아 눈길을 끄니다. 그런가 하면 ‘문장 길이의 적절성’은 가장 낮은 4.0점을 받았는데요. 한 문장이 한 단락을 이룰 정도로 길어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네 번(5월, 7월, 9월, 11월)에 걸친 조사에서 소통성 평균 점수가 4.05에서 4.26까지 점점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애쓴 덕이겠죠?



• 보도자료, ‘어법에 맞는 문장’ 오류 가장 많아

보도자료에서 발견된 오류 중에서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밖에 ‘의미에 맞지 않는 어휘’,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어긴 표현’,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 오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가 항목	오류 건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했나?	708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했나?	68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나?	51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나?	4

(2019년 보도자료 720건 기준)

• 누리집 첫 화면 어려운 단어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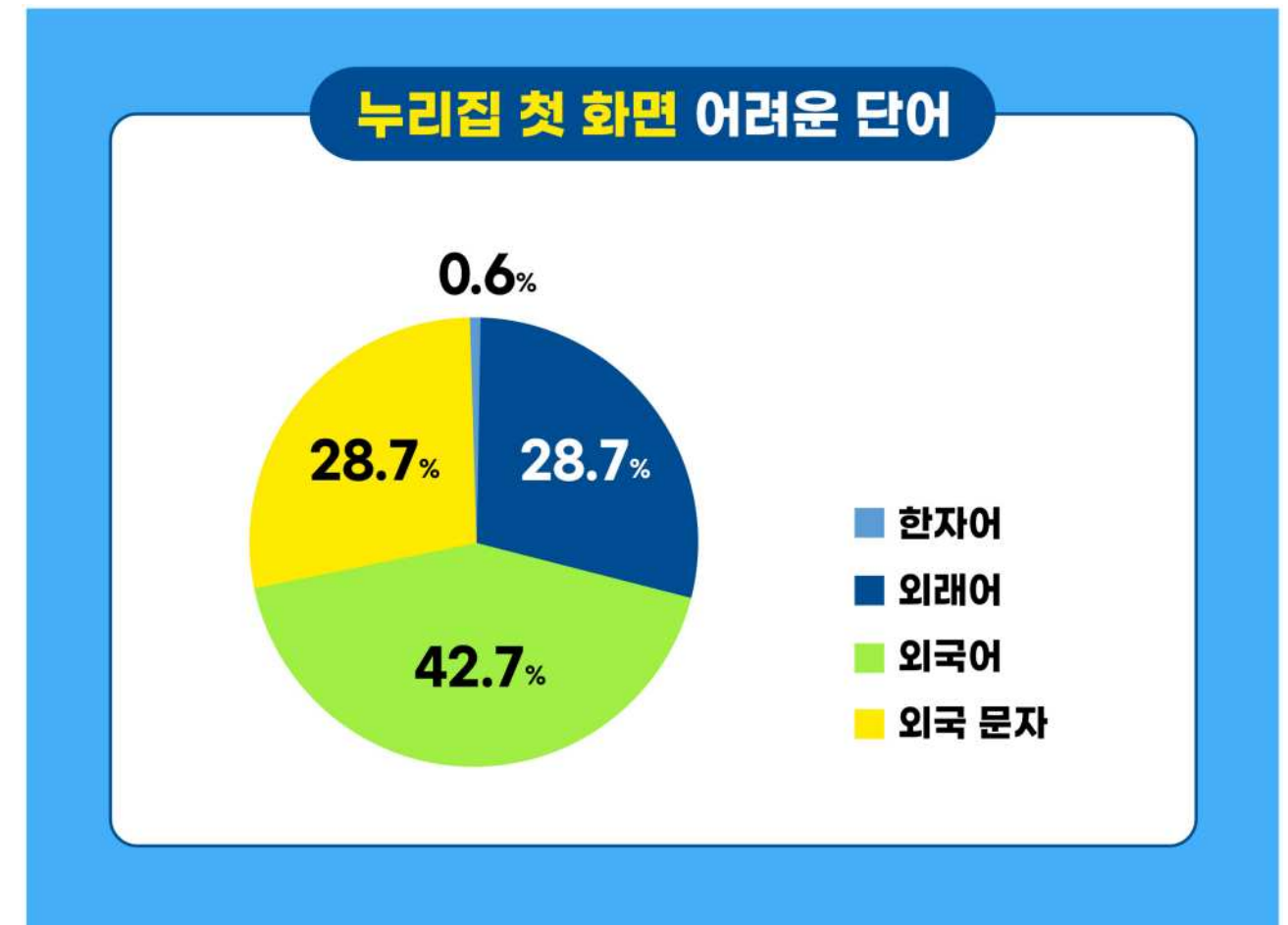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이 2019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누리집 첫 화면을 조사한 결과, 어려운 어휘를 157개나 발견했습니다.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니 불필요한 외래어와 외국어가 7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 문자의 무분별한 노출도 28%나 차지했습니다.

공공기관 누리집은 국민이 기관을 알고자 할 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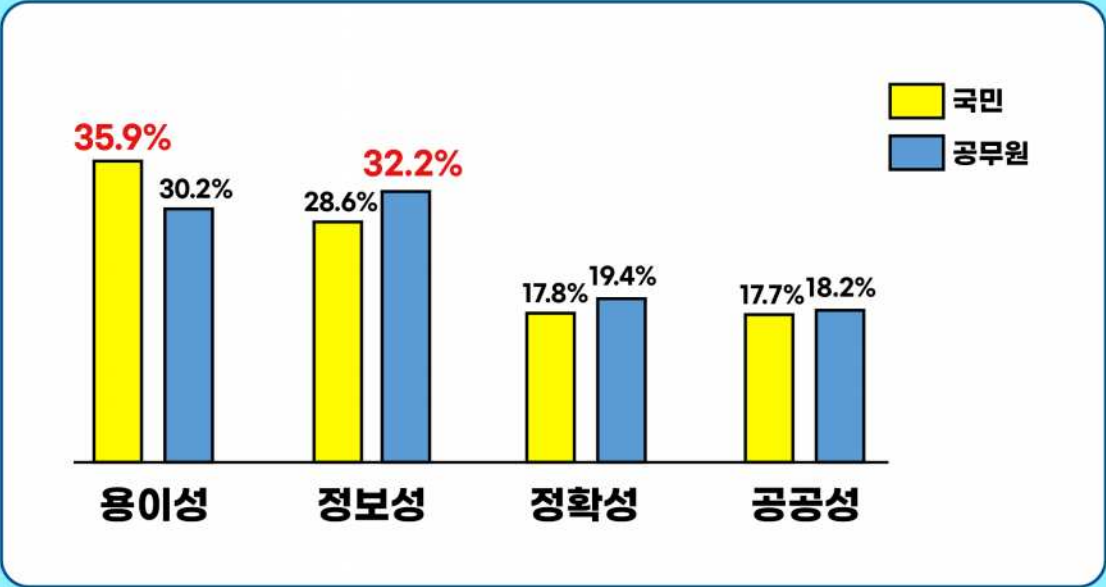
2. 공공언어를 바라보는 시선 차이

2014년에 실시한 ‘공공언어 인식 실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을 국민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공공언어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쓰이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40.4%가 그렇다고 응답한 데에 반해, 국민은 27.1%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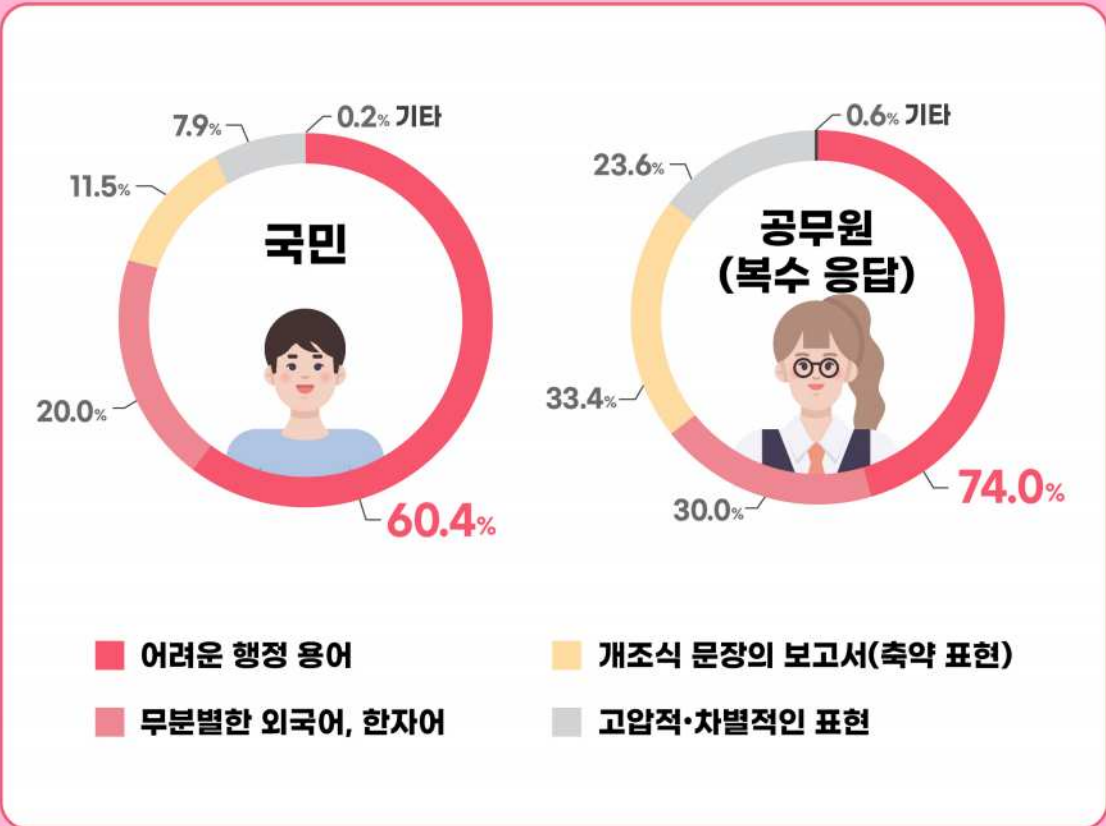
공공언어의 네 가지 요소인 용이성, 정보성, 정확성, 공공성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보았는데요. 국민은 이해하기 쉽고 읽기 편한 용이성(35.9%)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공무원은 알려야 할 핵심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성(32.2%)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반면 개선할 점으로는 국민(60.4%)과 공무원(74%) 모두 ‘어려운 행정 용어’를 꼽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공공언어 요소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항목



3. 어려운 행정용어로 매년 170억 원 손실

어려운 공공언어의 경제적 비용 예측

구분	국민 시간 비용	민원 처리 공무원 시간 비용
비용	118.3억 원	51.8억 원
연간 시간 비용 합계	170.1억 원	

어려운 정책 용어와 정책명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해 보니 ‘귀책 사유’, ‘봉입’, ‘익일’ 등 공공기관에서 쓰는 어려운 용어가 1년에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공공기관의 공공언어를 30년 이상 지속해서 개선한다면 최대 3조 431.1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니 쉬운 말 쓰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국립국어원이 앞장섭니다!



공공언어 통합 지원 누리집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공공언어에 대한 감수, 정책용어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개선해야 할 공공언어를 제보하는 게시판도 열어 두었습니다.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도 발간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보도자료, 안내문 등을 작성할 때 쉽고 정확한 지침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데 국립국어원이 앞장서겠습니다.

※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2018년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국립국어원, 『2019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2019)』.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201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언어 인식 실태 조사 최종 보고서(2014)』.

자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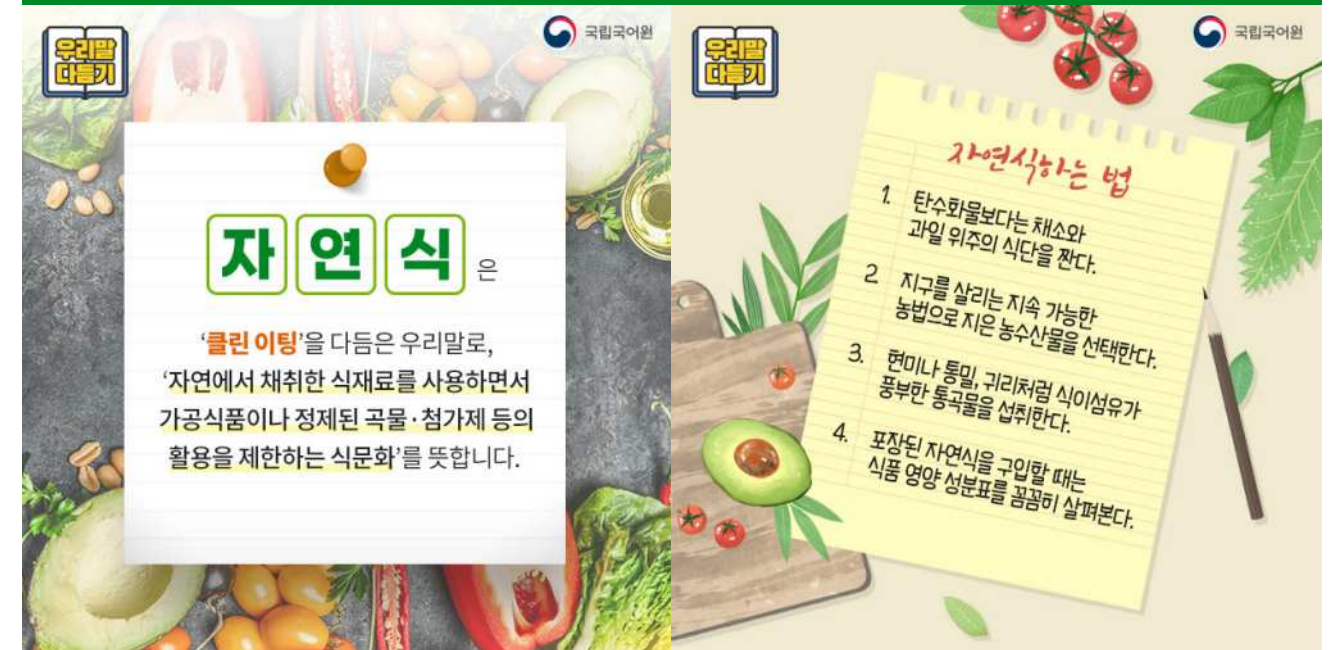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자연식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자연식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라면, 통조림처럼
첨가제가 많은 식품은 피하고,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같은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드세요.



자연식

'클린 이팅'을 다듬은 우리말로,
'자연에서 채취한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곡물·첨가제 등의
활용을 제한하는 식문화'를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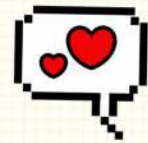
자연식하는 법

1. 탄수화물보다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짠다.
2. 지구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농법으로 지은 농수산물을 선택한다.
3. 현미나 통밀, 귀리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을 섭취한다.
4. 포장된 자연식을 구입할 때는
식품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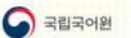
몸에 좋은 자연식처럼
자연스러운 우리말을 사용합시다!

영상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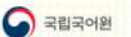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상을 기록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누리소통망에
올리는 **영상 일기**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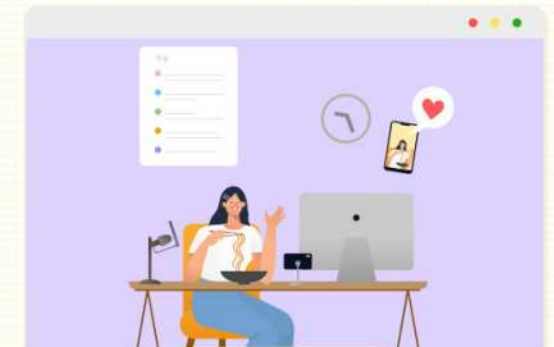


영상 일기는 억지로 꾸민 설정보다는
나의 하루를 진솔하게 기록하는 게 좋아요.

주로 요리, 식물 키우기, 육아, 독서 등 평범한 일상을
보여 주는 **영상 일기**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영 상 일 기



영상 일기의 매력

브이로그를 다듬은 우리말로,
'자신의 일상을 직접 찍은 동영상을 개인 누리소통망,
동영상 실시간 재생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 1 나의 일상을 남과 공유할 수 있다.
- 2 글과 사진보다 생생하게 일상을 기록할 수 있다.
- 3 복잡한 기획이 없어도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



두 자매의
영상 일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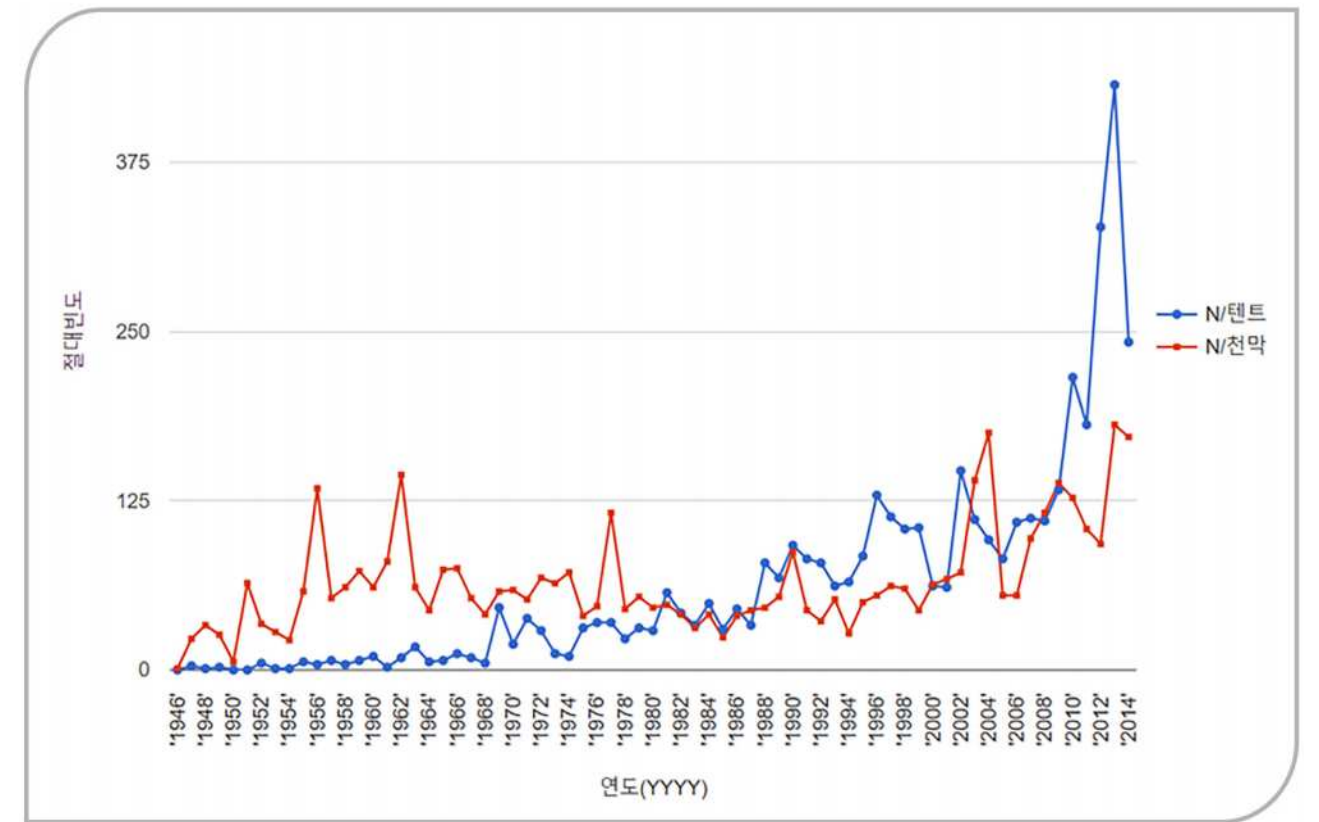
여러분도 **영상 일기** 만들기에 도전해 보세요!
쉬운 우리말로 만들면 더 좋겠지요?

텐트와 천막은 같은 말일까요?



글. 김일환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텐트(tent)는 영어에서 온 차용어이고 천막(天幕)은 한자어다. 이 두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동일하다. 즉, 같은 사물을 지시하는 두 개의 단어가 존재하는 셈이다. ‘천막’이라는 한자어가 있는데도 굳이 ‘텐트’라는 영어 단어를 차용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두 단어의 연도별 사용 빈도부터 확인해 보자.



▲<그림> ‘텐트’와 ‘천막’의 연도별 사용 빈도(동아일보 말뭉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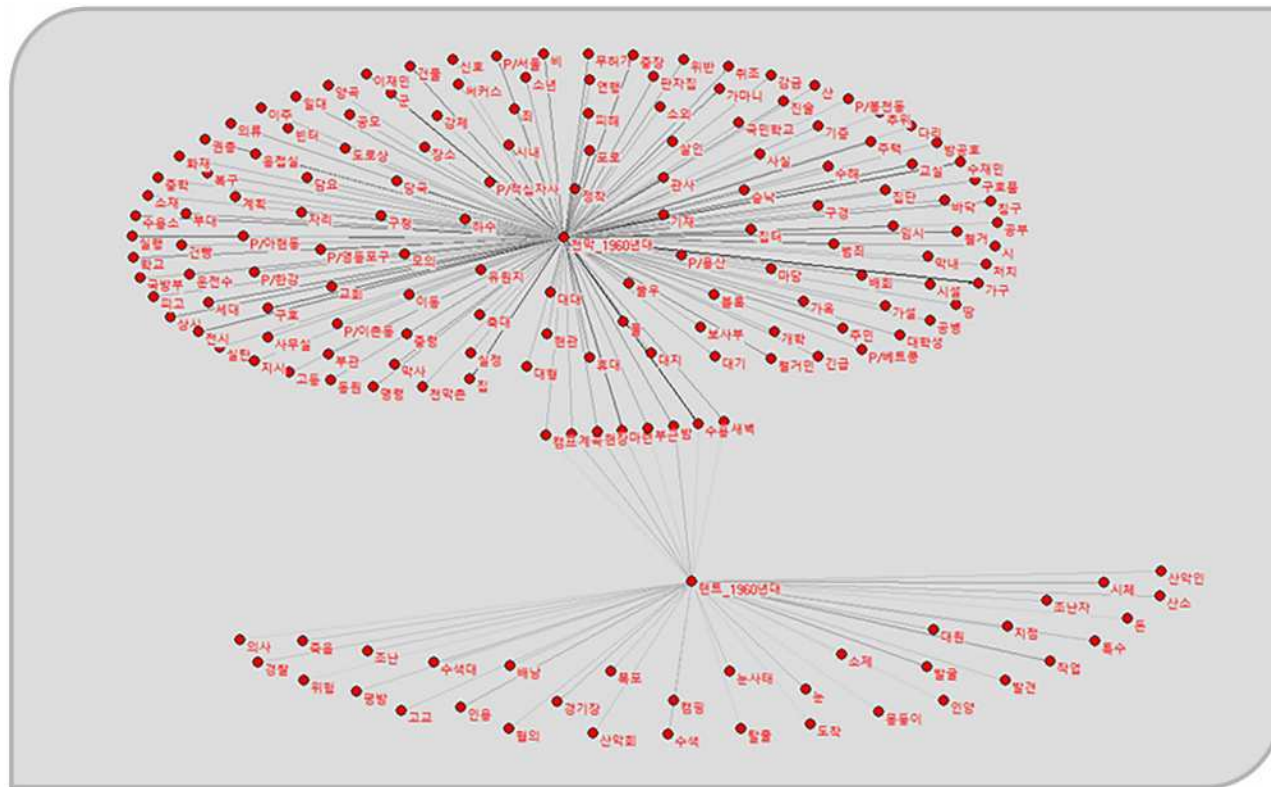
<그림 1>에 따르면 ‘천막’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텐트’보다 자주 사용되는 단어였으며, 그 이후 두 단어가 대등한 정도로 쓰이다가 2000년대 전후부터 ‘텐트’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2000년대 들면서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텐트의 빈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으나 빈도 정보만 갖고는 텐트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 원인, 그리고 두 단어의 사용상의 변화 등을 추측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연관어를 살피는 것이다. 연관어는 말 그대로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의는 결국 ‘연관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

이 연관성을 포착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공기 정보’(co-occurrence information)인데, 공기 정보는 어떤 단어와 유의미하게 같이 쓰이는 단어에 대한 정보이다. 공기 정보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떤 단어의 사용상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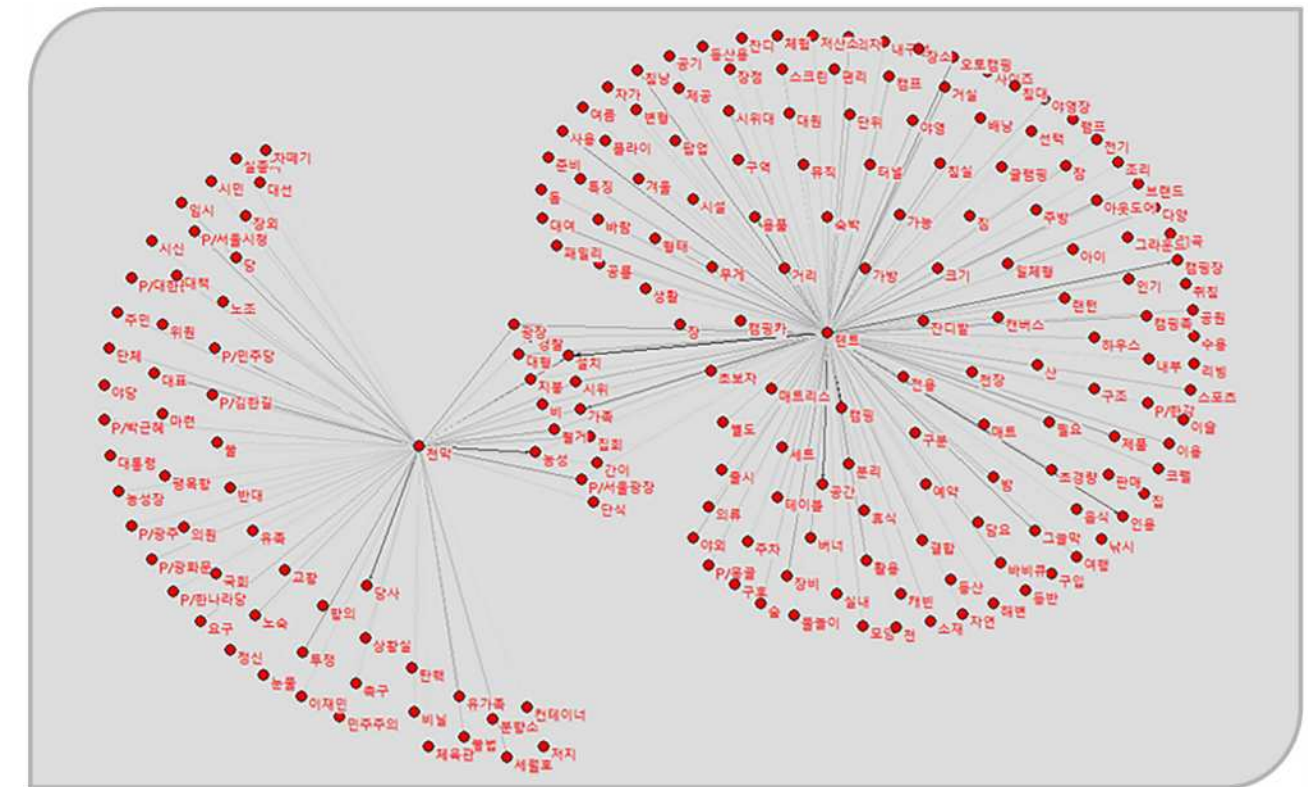
그럼 이제 텐트와 천막의 공기 정보를 살펴보자. 먼저 <그림 2>는 1960년대 ‘천막’과 ‘텐트’의 연관어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한 것이다.



* 공기어: 어떤 단어와 공기 관계에 있는 단어

여기서는 우선 ‘천막’의 연관어가 ‘텐트’에 비해 많다는 점이 시각적으로 확인된다. 천막은 지역과 관련한 단어들(서울, 용산, 봉천동, 아현동, 영등포구, 한강, 이촌동, 천막촌)이나 군대 관련 단어들(군, 부관, 명령, 실탄, 부대, 권총, 중장, 막사, 보사부, 포로, 수용소), 그리고 난민 구호와 관련된 단어들(철거, 철거민, 판자집, 무허가, 집, 수해, 수재민, 이재민, 구호품(담요, 의류, 침구), 적십자사)이 주요 공기어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텐트’는 조난 사건의 수색과 관련한 공기어들(캠핑, 눈사태, 조난, 조난자, 수색대, 수색대, 배낭, 인양, 대원, 산악회, 시체)의 분포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60년대까지만 해도 두 단어는 ‘계곡, 캠프, 현장, 마련, 밤, 부근, 새벽, 수용’ 등의 공기어를 공유할 정도로 서로 용법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던 양상이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크게 변화한다. ‘천막’은 주로 시위, 농성 등과 같이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한 연관어와, ‘텐트’는 캠핑, 아웃도어, 캠핑카 등과 같이 여가와 관련한 연관어와 주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텐트와 천막은 비록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사용역을 공고히 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천막은 주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텐트는 여가 생활 속에서 그 쓰임이 굳어져 가고 있다. 물론 이는 단어 사용에 대한 주된 경향만을 보여줄 뿐이다. 농성을 하면서도 ‘텐트’는 칠 수 있다. 그러나 왠지 이번 여름 캠핑에 ‘천막’은 가지고 가기 어려울 듯하다.

김용환 공공수어 통역 품질점검 위원장 고경희·권동호 수어통역사의 대담

농인의 알 권리와 언어권 보장하는 공공수어 통역 시대 개막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되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인의 정부 정책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대국민 담화나 정부 정책, 재난 상황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정해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관련 정례 발표에 실시간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농인의 알 권리와 언어권을 보장함은 물론 수어의 위상과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본격적으로 공공수어 통역이 시작된 지금, 공공수어 통역은 제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을까? 농인 대표로 공공수어 통역 품질관리를 맡고 있는 김용환 공공수어 통역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고경희, 권동호 수어통역사를 만나 5개월여가 지난 공공수어 통역 서비스를 점검해 봤다. 진행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이대성 학예연구관이 맡았다.



공공수어 통역은 농인의 자부심

이대성 학예연구관 (이하 이 연구관) 이전에는 화면 아래 작은 동그라미 안에 수어통역사가 있었는데, 공공수어 통역 서비스에서는 정책 발표자와 함께 나란히 서서 당당히 화면 절반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은 음성언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환 위원장 (이하 김 위원장) 예전에는 농인들이 작은 동그라미에 집중하느라 힘들었고 피로감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발표자와 나란히 서서 수어를 통역하는 통역사가 생겨 뉴스 보기가 굉장히 편안해져서 내용에 쉽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화면 절반을 채우는 통역사를 보면서 많은 농인들이 수어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느끼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왼쪽부터) 김용환 위원장, 고경희 통역사, 권동호 통역사

이 연구관 공공수어 통역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위원장 농인에게 수어는 모국어입니다. 청인 사회에서 농인의 알 권리와 언어권을 보장하려면 수어 통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경희 통역사 (이하 고 통역사) 수어 통역 20년 차인 제게 농인은 장애인인 아닌 수어라는 언어를 가진 소수민족입니다. 외국어를 모르면 외국인과의 소통이 안 되듯, 수어를 모르면 농인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일 뿐입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국민에게 공공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수어를 모르더라도 저희처럼 수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 준다면 청각장애인이란 인식보다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처럼 말이죠. 또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가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위상의 언어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수어통역사로서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권동호 통역사 (이하 권 통역사) 한국은 청인뿐 아니라 농인도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외국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하면 한국인을 위해 자막이 붙는 것처럼, 되도록 많은 한국어를 농인의 모국어인 수어로 통역해 주어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수어 통역은 꼭 필요합니다.

이 연구관 공공수어 통역 이후 통역사로서 느끼는 변화가 있을까요?

권 통역사 공공수어 통역 이전에는 통역을 위해 행사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면 수어통역사를 가장자리에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현장에서마저 수어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공수어 통역 이후에는 화자의 바로 옆에서 수어 통역을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는 농인분들뿐 아니라 통역사인 제게도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참 기뻐했습니다.

이 연구관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유행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정부 발표가 있는데, 농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고 통역으로 보기 편안한 발표자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 통역사 요즘 가장 유명하시고, 우리와 가장 자주 화면에서 만나는 정은경 본부장님이 침착하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장점이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통역사에게 옮겨 갑니다. 내용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 통역하기에도 통역된 수어로 보기에에도 제일 편합니다.

이 연구관 역시 가장 인기 있는 분다우시군요.(일동 웃음)

공공수어, 문장식 아닌 쉽고 이해 빠른 농식으로 발전해야



▲ 이번 대담에는 김 위원장과 질문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가 함께했다.

이 연구관 본격적으로 공공수어 통역이 시작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점들이 속속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 공공수어 품질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보니, 수어통역사들이 통역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내용이 워낙 어려워 초반에는 오역이 생기기도 했죠. 또 수어에는 비수지¹⁾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표정이 중요한데 초반에는 통역사들이 긴장한 탓인지 비수지가 잘 표현되지 않아 내용 전달이 미흡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공공수어가 너무 문장식이라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농인에게는 농식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는데, 농식이 더 시원하고 이해가 빠르거든요.

1) 비수지: 손동작을 제외한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

이 연구관 농식과 문장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 통역사 영어와 한국어의 문장 배열이 다른 것처럼, 한국 문장식 수어와 농식 수어가 다릅니다. 사실 문장식 수어나 농식 수어라는 표현보다 한국수어와 수지한국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문법과 수어 문법은 다릅니다. 수어 문법체계에 따라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가 한국수어이고, 수어와 한국어 문장을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이 수지한국어입니다.

권 통역사 예를 들어 사망자 발생 사실을 음성언어로 발표할 때는 무표정하게 사실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수어에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비수지가 들어가야 사망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비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수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어와 수어의 차이입니다. 한국어는 사망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내용이 전달되지만, 농인은 표정까지 있어야 사망이라는 의미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농식입니다.

김 위원장 침착하고 차분한 통역으로는 농인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수어 어휘 하나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비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야 언어가 완성됩니다.

이 연구관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수어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부터 시각장애인까지 여러 유형의 장애인 중 누가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재난 방송을 듣고 바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주변에 물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수어 통역으로 정보 접근성이 한층 빨라졌습니다.

이 연구관 코로나 19 상황에 각종 발표를 하루에도 몇 번씩 통역하니 통역사들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권 통역사 동시통역이고, 공공수어 통역인데다 대본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늘 긴장합니다.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발표 현장에 설 때마다 떨립니다. 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한 지 8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제가 뉴스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공수어 통역은 이제 두 달 했는데, 여기 저기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수어 통역의 존재를 알아 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연구관 수어통역사의 처우는 어떤가요?

고 통역사

기본적으로 수어통역사도 외국어통역사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어 통역은 피로도가 매우 높아 20분마다 교대를 해야 통역 서비스 질이 유지됩니다. 그렇기에 수어 통역은 2인 1조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몹시 낮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처음부터 이 점에 이해가 깊어, 통역 배정을 2인 1조로 해 주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통역사

수어 통역은 봉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어 통역을 아직까지도 전문 언어 통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공공수어 통역, 농인 통역사도 함께 서는 날 오길



▲ 대담을 마친 후 국립국어원 앞에서 수어로 '사랑해요' 인사하고 있는 세 사람

이 연구관

코로나 19가 신종 바이러스이다 보니 다양한 신조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관련 수어도 많이 생겼을 텐데 사용하기 어떠신지요.

김 위원장

공공수어 품질관리 위원으로 농인과 국어원 사이에서 제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일동 웃음) 처음에는 '우한'의 지명을 딴 수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명 대신 '코로나 19'로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수어로 구사하기에는 지명을 딴 수형이 더 편합니다. '코로나 19'는 억지로 수형2)을 만드는 느낌을 주어 불편합니다. 청인들은 코로나 19가 편할지 몰라도 농인들은 어렵습니다.

2) 수형: 손과 손가락의 모양



▲ 코로나 19



▲ '우한' 지명을 딴 코로나 19

고 통역사

저 역시 지명을 딴 수형으로 통역할 때가 더 편했는데, '코로나 19'로 바뀌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19' 수형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연구관

그럼 코로나 19 관련 신조어 중 사용이 편한 것은 뭔가요?

김 위원장

'자가격리'라는 수어가 제일 괜찮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또 '침방울감염'도 사용하기 편합니다.



▲ 자가격리



▲ 침방울감염

이 연구관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가 만들어진 지도 4년여가 되어 가는데, 수어 정책 등과 관련해 꼭 남기고 싶은 말이나 건의 사항 등이 있을까요?

김 위원장

먼저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는 통역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 발표 시, 감염 위험이 있는 악조건 속에서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마스크도 쓰지 않고 통역하는 모습에 격정도 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수어가 농인을 위해 통역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청인에게 어감이 있듯, 농인에게도 언어의 느낌이 있습니다. 공공수어 통역 초반에는 이런 농인 언어의 느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직역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의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비수지 기호입니다. 농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법으로 전달되는 공공수어 통역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권 통역사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협업해서 수어통역사 자질 및 수어 통역 품질 점검 외에도 통역사의 전문성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고 통역사

미국이나 캐나다는 농인 통역사가 청인 통역사와 함께 직접 발표 현장에서 통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재난 시에 농인 통역사가 반드시 함께 통역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통역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을 여행한다고 할 때 한국인 가이드와 외국인 가이드 중 어느 쪽이 한국인에게 편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그 중요성이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인통역사 뿐만 아니라 농인 통역사도 발표 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관

외국에 비하면 공공수어 통역 시행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재난 상황에서 공공수어 통역이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국립국어원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현장 통역사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 통역: 윤남, 문혜영
정리: 강은진
사진: 김영길
영상: 임대홍

우리말 풀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실감하는 나날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이 시간,
잠시 <윙표, 마침표>의 유익한 이야기를 읽으며 보내는 것은 어떠세요?
그 후엔 우리말 풀기도 잊지 마세요!

문제 1

한편 ‘□□□□’은 어떤 말이 문장 속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한 갈래이다. 그런데 어떤 말의 품사는 바뀌지 않지만, 그 말이 어떤 □□□□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하고 쓰는 단위 명사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셀 때는 명, 짐승을 셀 때는 마리처럼 세는 말이 다릅니다. 세는 말을 가리켜 ‘□□□□□□’라고 해요.

단서 실전 띄어쓰기

문제 3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토론방송과 개표방송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언어사용 지침을 담은 ‘□□□□□□□□□□’를 발간하였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4

□□□□은 ‘클린 이팅’을 다듬은 우리말로, ‘자연에서 채취한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곡물·첨가제 등의 활용을 제한하는 식문화’를 뜻합니다.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5

‘□□□’는 《조선말대사전》에 실려 있는 말이다.
 ‘뱌’는 ‘배알’의 준말이다.
 ‘배알’은 ‘창자’나 ‘속마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니까,
 ‘□□□’는 ‘속마음을 풀어내는 일’을
 가리키는 말일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단서 표준어바깥의 세상

문제 6

이 연관성을 포착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 (co-occurrence information)인데,
 ‘□□□□’는 어떤 단어와 유의미하게
 같이 쓰이는 단어에 대한 정보이다.

단서 말뭉치로 바라보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4. 7.~2020. 4. 21.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5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송근정(4470) 고주희(5054) 유현정(2537) 정효주(6858) 김연수(2722)
 서현주(9163) 전미림(7998) 이윤민(8183) 김윤희(7785) 장윤옥(4333)

우리말 풀기



이달에도 <침표, 마침표.>를 보러 와 주신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꼼꼼히 읽었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우리말 풀기’도 잊지 말고 참여해 보세요!

문제 1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에 어미가 붙어야만 말을 쓸 수 있으므로
어간에 어미가 붙는 현상을 ‘어미 활용’,
줄여서 ‘’이라 한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띄어쓰기가 까다로운 ‘’과 ‘’은 문맥에 따라
띄어쓰기가 다릅니다.
‘’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꿔도 뜻이 통하면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으로 붙여 써요.

단서 실전 띄어쓰기

문제 3

각종 보고서, 안내문, 공고문, 법령문,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면서
지금 쓰려는 용어나 문장이 적절한지,
좀 더 나은 용어나 표현은 없는지도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을 찾아주세요.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4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상을 기록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누리소통망에 올리는
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5

2014년에 실시한 ‘’에서는 조사 대상을
국민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공공언어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쓰이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단서 국어정책 통계

문제 6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인의 정부 정책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에 따라 대국민 담화나 정부 정책, 재난 상황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정해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4. 21.~2020. 5. 12.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شم표, ماشم표.” 5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송근정(4470) 고주희(5054) 유현정(2537) 정효주(6858) 김연수(2722)
서현주(9163) 전미림(7998) 이윤민(8183) 김윤희(7785) 장윤옥(4333)